



LG와 삼성, 사이노라에 2500만유로 투자

브루흐잘, 독일, 2017년 09월 20일 - OLED(유기발광다이오드)용 고효율 유기발광 재료를 공급하는 세계 선도 기업 사이노라(CYNORA)는 한국의 양대 기술 대기업이 OLED 발광 소재 분야의 독보적 주자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자사의 성장 계획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사이노라는 열활성화지연형광(Thermally Activated Delayed Fluorescence, 약칭 TADF) 기술을 기반으로 OLED 디스플레이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유기 발광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사이노라는 이 기술로 OLED 디스플레이 제조 업계에서 가장 널리 선호되는 소재인 고효율 청색 발광재료를 최초로 상용 출시하게 된다. 고성능 청색 재료는 전력 소비를 크게 줄이고 디스플레이 해상도를 높여 준다.

LG디스플레이와 삼성벤처투자회사(이하 삼성벤처스)는 전 색상 영역을 커버하는 AMOLED 디스플레이용 유기발광재료 포트폴리오 개발을 위한 사이노라의 시리즈B 투자모집 라운드에 2500만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두 기업은 MIG, Wecken & Cie, KfW 등 최근 몇 년간 사이노라의 성장을 적극 지지해온 기존 투자사와 함께 새로운 투자사로 함께 하게 된다. 사이노라는 지난 몇 달간 LG디스플레이 및 삼성과 긴밀히 협력하며 이번 전략적 투자를 준비해 왔다.

디스플레이 기술의 주요 주자로 군림하고 있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디스플레이는 이번 투자와 함께 사이노라의 연구 개발(R&D) 및 지적재산(IP) 포트폴리오 개선을 위해 각각 진행할 공동 개발 작업을 통해 사이노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투자는 첨단 디스플레이 기술 상용화를 구현할 토대로 활용된다.



길다스 소린(Gildas Sorin) 사이노라 최고경영자(CEO)는 “LG디스플레이와 삼성벤처스가 사이노라 주주로 참여하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투자는 사이노라의 재료가 OLED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대단히 유망함을 입증하는 것”이라며 “양사와 적극 협력하며 두 회사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치한 자금은 세계 고효율 발광재료 시장에서 사이노라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도 활용될 것”이라며 “2017년 말 첫번째 청색 제품을 출시하는 데 이어 녹색 및 적색 제품도 차례로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프리미엄 TV와 스마트폰에서 AMOLED 패널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OLED 패널 시장 규모는 2021년 750억 달러(연평균 매출액 증가율 31%)에 이를 전망이다. (UBI리서치(UBI Research) 2017년 전망)

사이노라(CYNORA) 개요

2008년 설립된 사이노라(CYNORA)는 TADF(열활성화지연 형광)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이다. 회사는 현재 고효율 청색 OLED 발광 소재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2019년까지 모든 색깔의 빛을 발하는 소재를 제공할 계획이다. 사이노라는 한국과 중국에 대표부를 두고 있으며 고객사와 재료 및 디바이스 개발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회사는 100개 이상의 특허를 포함, 광범위한 IP(지적재산)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다.